

우리나라 '인간사회와 환경' 과와 호주의 '사회와 환경연구' 과의 비교 연구

최석진*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Society and Environment' Subject of Korea and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Subject of Australia

Suk-Jin Choi*

요약 : 이 연구는 교과과목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과와 호주의 '사회와 환경(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SOSE)' 과 간의 특성을 주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로 분석하고 일부 내용을 전문가의 인터뷰와 전자 메일 등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교육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 것이다.

먼저, 교육과정 및 Syllabus를 통한 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것은 사회과의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 것은 전통적인 사회과에 새로운 환경교육 내용을 추가 강조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용 체계는, 우리나라 것이 지리, 역사, 공민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강조되는 일부 내용을 추출하여 공통적인 핵심 영역으로 하되, 최근 강조되는 7개의 주요 영역 아래 구체적인 내용 및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 것은 4가지 핵심 영역(Strand)으로서 시간과 연속성 및 변화, 장소와 공간, 문화와 정체성(Identity), 시스템과 자원 및 권력(Power)을 제시하였다.

두 나라의 이들 교과서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체제는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용 구성 방식에서는 두 나라 것이 비슷하게, 내용 서술과 사진 삽화 및 참고자료와 활동, 그리고 학습 정리와 평가 등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것이 다양하면서 서술 내용이 많으며 문장이 어렵고, 많은 활동과 평가를 요구하는 등 복잡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안내와 활용은 우리나라 것이 더 돋보이고 호주 것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개발 할 때는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보다 많이 연구하고, 그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간사회와 환경, 사회와 환경, 호주, 교육과정

Abstract :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subjects of, *Human Society and Environment* (HSE) from Korea and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SOSE) from Australia. Both subject areas have similar name as well as similarity in content.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se two subjects is based primarily on a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ed material and also information that has been gathered from Internet. As well there is a component of the content, which is sourced from discussion and interview with experts by e-mail.

The abstract of the paper is as follows. The curriculum and syllabus of both Australian and Korean treatment of the subject are analyzed. The analysis of HSE from the Korean perspective will focus on the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빙연구위원(Visiting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sjchoi@kice.re.kr

connection of deepen curriculum and a common national curriculum. This subject is an selective subject at high school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s of SOSE in the Australia are delivered from *Social Studies Education, Geography* etc. In other to integrate Environment Education contents into subject areas, but also provide a balanced and integrated teaching method to address the issues. In terms of contents, HSE is composed of common key issues from *Geography, History*, and also *Civics*. It also describes in detail the contents and factors, which are based on seven key learning areas. SOSE in Australia is dived into four important strands: time sequence and change, place and space, culture and identity, system resource and power.

Both Korean and Australian undert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subjects. As a resul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erms of structure but there are also some key differences. Both curriculums describe contents and use pictures and illustrations, references and activities, and then provide summary and evaluation. As well, these contents are arranged in similar sequence. However, HSE in Korea is more complex as it includes more and various contents, and tries to describe the content in detail. Also it contains more activities compared to SOSE found in Australian. In Korean, there are more resources for HSE in the Internet, which students can use to study as well as for activities material are available compared to SOSE resource in Internet in Australia.

Key words : Human Society and Environment (HSE),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SOSE), Australia, curriculu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은 국민공통 기본과정의 '사회'와 심화선택 과목 사이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7차 교육과정상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주로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도 이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과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통합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은 제 5차 교육과정 이래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과와 같이, 보다 확고한 방향 제시와 내용 구성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과목 개설 때부터 이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통합을 지향하되 영역간의 안배를 고려하여 지리와 역사 및 공민 등의 영역이 안배된 경향이 많다. 그리하여 이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 때부터 교과서 개발 까지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관련 참고 자료 등을 많이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자료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에서 1990년 부

터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적용중인 '사회와 환경연구'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SOSE)는 이 나라에 전부터 있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시민교육(citizenship) 등의 사회과(Social Studies Education)를 통합하고 여기에 환경교육 내용을 강화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교과로서 통합 지향적이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호주의 SOSE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과목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 고등학교의 '인간사회와 환경' 과를 비롯하여 사회과 및 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의 방향과 내용 구성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사회과의 통합적 구성에 대하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최석진외, 2001)를 비롯하여 매우 많으나,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교육과정과 동 해설서 및 현재 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검정의 교과용도서 정도이다.

호주의 SOSE는 주로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호주(Fien, 2000, Debbie Heck, 2001 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으나(최석진 외, 2001, 2002 등), 그 내용을 주로 구성하는 사회과와의 비교 연구는 거의

없고, 이 교과서의 지리 영역과 한국의 10학년 지리 영역의 교과서 비교 연구(최정미, 2004) 정도가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 과목과 사회과학과의 관련성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관련 강좌 등을 대학에서도 개설하고 있다(호주 Griffith University의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Curriculum A' 강좌, 2003, 2004 등). 호주에서는 이 SOSE를 주 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3. 연구 방향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의 발생 배경과 성격, 그리고 내용 구성 및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둘째, 호주 SOSE의 내용 구성, 지도 방법, 평가 등의 특징과 사회과학과 환경교육적인 내용 구성의 통합적인 접근과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은 그 내용이 교육과정 등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졌으나, 호주의 SOSE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그리하여, 호주의 SOSE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중등학교 교과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 및 Syllabus와 교과용 도서를 수집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시행하여 내용을 보충한다. 셋째, 이들 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과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약술하고 호주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교육부의 제 7차 교육과정 관련 문서와 검정 교과서(최운식 외, 2002, 지학사 등) 등이다. 호주는 Victoria 주의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2000)와 Queensland 주의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Year 1 to 10 Sourcebook Guidelines(2000)를 선정하고, 교과서는 Queensland 주에서 많이 채택하는 SOSE

(Longman outcome, 2003)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해당 교과서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만났으나 충분히 토론을 하지 못하고, 관련 문헌 및 웹사이트를 통한 자료 수집과 일부 전문가 대상으로 서면과 메일 및 짧은 면담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당 교과서의 개발자와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기가 어려워 일부 인사에 한정했다. 그리하여 문헌 자료 중심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고 단일화되어 있으나, 호주의 교육과정은 우선 연방 정부 차원에서 Curriculum Cooperation 기관 등에서 일차 만들어, 주(州)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에 이들을 학구(District)나 학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호주같이 州, 지역구, 학교 수준의 교육 자치가 허용되어 온 나라에서는 국가나 주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Victoria주와 Queensland 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의 기대 효과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나라의 관련 교과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과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이들 연구를 통하여, 현행 관련 교과목 운영의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차기의 사회과학과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 및 환경 과목의 개선과, 앞으로 8차 교육과정에서 개선이나 제정을 추진 중인 통합 지향 또는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에 도움을 제공한다.

II. 우리나라 '인간사회와 환경' 과 호주의 'SOSE'의 교육과정상 특징 비교

1. 교과목의 설치 배경 및 성격

1)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7차 교육과정에서는 10학년까지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를 이수한 후에 일반선택 및 심화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일반선택 과목은

24단위 중에서, 사회 관련 영역으로 이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이 유일하게 신설되었다.

국민 공통 교과인 '사회'가 실질적으로는 국사와 분리되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으로 분리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이 과목은 역사 영역도 포함하여 보다 통합성을 지향한다. 국민공통 교과의 '사회'가 경험중심의 통합이고, 심화 선택 과목들이 개별적인 사회과학 중심이라면 '인간사회와 환경'은 양자를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갖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김일기 외, 1997).

이 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과인 '사회'와 심화 선택의 여러 과목을 연계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이수한 후에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전의 각 세부 전공과목들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통합적으로 여러 과목들을 안내하며, 심화 선택은 여러 과목들을 모두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사회과의 관련 분야를 일부라도 고르게 이해시킬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과목의 기본 방향은 7차 교육과정 상에서 국어과에 '국어생활' 및 도덕과에 '시민윤리' 등과 같은 위치이다.

이 과목의 명칭도 처음에는 '인간사회' 또는 '사회와 환경'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자칫하면 '일반사회' 등과 영역 및 성격 등이 유사할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조정되었다¹⁾.

대표적인 문제점은, '중간적인 성격이 애매한 표현이지만 국민공통 기본 과목과 여러 심화 선택 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차별성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점(김일기 외 1997)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대로 녹아 나타나지 못했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러한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응시 과목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며, 현장 학교나 학계에서도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이다.

2) 호주의 SOSE

호주의 SOSE는 7학년부터 10학년사이의 기본 주요 교육과정상의 핵심 8개 교과 중의 하나이며, 일부에서는 그 속에서 다시 세부 선택 과목으로 존재한다. 8개 교과는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제 2외국어, 보건체육, 예술, SOSE(사회와 환경연구, 지리, 역사, 경제교육, 시민교육)이다. 이 SOSE의 내용 구성 및 단계별 이수는 크게 사회와 환경 연구(Level 1~3), 역사(Level

4~6), 지리(Level 4~6), 경제와 시민교육(Level 4~6) 등 4개의 strands²⁾로 나뉜다³⁾. 각 단계인 Level 별 이수는, 주로 Level 1⁴⁾에서 3까지 사회와 환경 strand를 배우고, Level 4에서 6까지 지리, 역사, 경제와 사회 strand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SOSE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Queensland, 2000). SOSE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간이 공동 사회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구조 및 체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오스트레일리아 지역과 국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국가, 그리고 국제적 관계와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길러 준다. 학생들이 이 연구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기능 및 가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목표

1)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이 과목의 교육과정상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7).

먼저 총괄 목표는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갖는 민주 시민 양성 교육'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역별 목표는 생략한다.

2) 호주의 SOSE

이 교과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의 문서 중 한 곳(Queensland State, 2000)에서는 목표 부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가치(value)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⁵⁾. 즉, 민주주의의 과정(process), 사회 정의(justice), 생태적·경제적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평화 등이다. 학생들은 이 교과를 통하여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고 강조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치들은 아울러 연구 능력, 비판적 사고력, 주제의 선택 능력 및 판단, 조사과정의 평가 기준 설정, 학습 결과의 구성요소 결정과 같은 기능의 신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SOSE는 역사, 지리, 사회 연구, 경제, 정치, 시민 의식과 연계되어 있다.

이 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적극적인 탐구자로서 지적이며 사려깊은 이해, 복합적인 사

고력을 소지하고 창조적인 인간, 상호의존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참여,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반성적(reflecting)이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등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 교과 내에서 '사회와 환경 탐구'라는 주제하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습의 결과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두루 적용 및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법교과적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은,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생활능력(lifeskills)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futures perspective) 등이다(Queensland 2000).

SOSE는 그 외에도 목표를 통합하여, 영역별 및 Level 별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⁶⁾. 즉, 여러 가지 전통적 학문 분야, 직업 교육, 역사 지리 경제 법률 연구와 정책 연구의 학문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⁷⁾. 이러한 목표는 호주의 인구, 시민교육, 환경인식, 세계의 이해, 경제, 기술 개발개념 6개의 개념 영역을 바탕으로 통합적 연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SOSE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4개의 strand 별로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목표를 서술하고 Level 별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SOSE는 법교과적으로 문해력(literacy), 수리(numeracy), 삶의 기술(lifeskill), 미래의 전망(future perspective)에 관하여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크며, 'SOSE'를 학습함으로써 다른 기능을 함께 신장시키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전통적 학문 분야, 직업 교육, 역사·지리·경제·법률 연구와 정책 연구의 학문 분야를 포함한다. 통합 연구의 대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시민 교육, 환경 인식, 세계의 이해, 경제, 기술 개발 등이다. 이상과 같이 이 교과는 종래의 사회과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성격과 방향을 주로 수용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내용

1)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내용 영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7).

- 인간 사회와 환경의 구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시

간, 인간과 사회

- 인간 사회의 탐구: 지역 조사와 분석, 역사 이해와 탐구, 사회 조사 방법
- 산업화와 현대 사회: 산업화의 지리적 배경, 산업화의 발달 과정, 현대 사회의 구조
- 지역화와 지방 자치: 지역화와 지역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
- 세계화와 세계의 이해: 세계화와 지구촌 시대, 지구촌의 현안 문제, 국제 사회의 이해
- 정보화와 정보 사회: 시·공간 개념의 변화, 정보 사회의 특징, 정보화와 미래 사회
- 새로운 세계의 창조: 해양과 우주로의 진출, 통일 한국의 미래상, 환경 친화적인 인간 사회

이상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이 과목은 사회를 구성하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3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 내용 중에서도 전통적인 환경관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정도이다. 따라서 이 과목명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인간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교육적인 내용은 거의 강조되지 않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호주의 SOSE에서 강조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2) 호주의 SOSE

호주 SOSE의 핵심 영역(strands)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이며, 하위에는 각각 5가지의 기본 개념(concepts)이 있다(Queensland 2000).

- 시간(time), 연속성(continuity)과 변화: 과거에 대한 경험, 변화와 연속성, 사람과 기여, 원인과 영향, 문화 유산
- 장소(place)와 공간(space): 인간과 환경과의 연관성, 과정(process)과 환경, 청지기 정신(stewardship), 장소의 특수성
- 문화와 정체성(identity):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감수성, 소속감, 문화 변동, 정체성의 형성
- 시스템, 자원 및 권력(power): 생태계와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관계, 경제와 사업(business), 참여와 의사결정, 시민정신과 정부, 권력에 대한 접근성

이와 같이 4가지 기본 strands에 대해서, 각각 기초 단계(Foundation Level)와 Level 1에서부터 Level 6까지 학습 목표(statement)와 핵심적인 학습 내용(core

learning outcomes) 및 추가학습 내용(discretionary learning outcomes)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 strand의 Level별 내용 구성을 보면, 州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Level 1~3에서는 학습자가 속한 지역 범위를 시작으로 하여 가족, 문화 집단, 이웃, 학교, 다른 사회 집단의 사회적 경험을 제시하며,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회 발전의 상호 영향 등이 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자연의 요소 소개와 환경 마인드를 형성하게 하여 다른 장소와 시간 및 사람들에 의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그들의 환경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여 학생 자신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이 교과에서는 세계 속에서 호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세계적 차원의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강조하고 국제적 관점을 갖게 하며,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며, 특히 시·공간 속의 인간과 환경의 특성과 상호 작용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별도로, Queensland 주의 이 교과 Syllabuses (2000)에서는 선택 과목(Optional Subject Syllabuses)으로 9학년과 10학년 과정에 시민교육(Civics)과 지리(Geography) 및 역사(History)의 strands를 제시하고 있다. 각 strands별 상세한 내용들은, 각각 해당 학문 내용 체계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교육과정 상에서 강조하는 주요 교수·학습 방법상의 유의점은 사회과의 그것과 비슷하나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평가는 사회과 등의 평가 방법 및 유의점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이 과목의 교육과정에는 '상세화된 영역별 내용에 의한 평가를 한다.'는 사항이 별도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영역별 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목은 아직까지 타 교과와 달리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이나 평가 기준은 물론,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안내와 평가 지침도 없어서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점이 많다.

2) 호주의 SOSE

호주 SOSE의 교수·학습 방법상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간의 통합적인 지도이며, 탐구적 학습과 창조적이고 문제해결력 및 사례학습을 통한 의사결정력 향상 등이다. 그런데 통합 학습을 매우 강조하지만, 전통적으로 지리, 역사, 시민교육, 경제교육 등으로 분리하여 지도하던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교사들에게, 통합적인 지도는 매우 어려움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어서 이 교과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호주에서도, 통합적 지도를 강조하나 지도상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서, 매년 교사 연수 및 훈련 과정을 통하여 연수를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수 과정과 자료가 많다⁸⁾.

호주의 SOSE에서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기본 원리 중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원리를 반영해야하며,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감수성, 학습 환경으로서 학습 스타일과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 성(gender), 지체장애,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각 level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지식,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두 나라 교과목의 교육과정상 특징 요약

두 나라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상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목의 신설 배경과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통적인 사회과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면서,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과 사고력 및 탐구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2000년대에 새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사회과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심화과정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는 전통적인 사회과에 새로운 환경교육 내용을 추가 강조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 목표는, 우리나라 것은 사회과의 목적인 '민주 시민의 양성'을 그대로 사용하며 하위 목표들도 매우 유사하다. 호주 것은 통합적 목표로서, 사고력과 창조성, 상호의존적 관계의 이해, 의사소통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강조하고, 법교과 학습으로서의 문해력, 수리력 및 생활능력, 미래에의 합리적인 전망력 등이 있다.

내용 체계는, 우리나라 것은 전통적인 지리, 역사, 국민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강조되는 일부 내용을 별도

로 포함하여 공통적인 핵심 영역으로 하였다. 호주 것은 4가지 핵심 영역(Strand)으로 시간과 연속성 및 변화, 장소와 공간, 문화와 정체성(Identity), 시스템과 자원 및 권력(Power)을 제시하고, 그 하부에 구체적인 핵심 개념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느 특정한 사회과의 세부 영역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이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는 두 나라가 비슷한 내용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호주 것은 포괄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각 Level 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성취 수준을 교육과정 문서에 담고 있다.

III. 우리나라와 호주의 해당 교과서 비교

1. 체제

우리나라 '인간사회와 환경'와 호주의 SOSE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용도서는 검정교과서로 현재 최운식 외(2002, 지학사)등이 개발⁹⁾한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책 한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책의 체제, 서술 상황, 편집, 저자들의 구성 등이 다른 출판의 것에 비해서 양호하여 호주의 것과 비교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호주의 SOSE 교과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현장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입한 책 중에서 Queensland 주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개발되어 이 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H. Mackay 등(2002, Longman Co.)이 개발한 책을 선택하였다¹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앞의 교육과정 비교 분석에서 주로 참고하였고, 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통합성과 4가지 핵심 strand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내용 구성을 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호주의 여러 주 중에서 특히 인구와 행정 기관 및 산업 등이 밀집하고 전통이 있는 주에서 사용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두 나라 교과서의 체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내용 서술

1)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여기에서는 위의 체제 구분에서 제시된 항목 중에서

주로 본문의 내용 서술 방식과 용어 해설, 활동 제시 방식, 사진과 삽화의 질 등을 주관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먼저 내용 서술면이다. 이 교과서 구성 의의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통합사회과적이며, 심화선택과정과 일반선택과정으로서 연결을 위한 교과서 내용 구성으로만 본다면,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요 근거로는 교육과정에 비교적 충실한 목차와 내용 구성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단원별 구성을 실질적인 통합의 면, 적절한 난이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와 심화과정의 사회과 관련 여러 과목들에 대한 실제적인 연계와 안내 정도 등으로 나누어 그 역할 수행 정도로 따져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의 영역(단원) 순서에 의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배열한 것이 많고, 교과서 전체 및 단원 간의 통합성과 단원 내의 통합적인 부분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적인 면을 관련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주로 전통적인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관련 내용은 분석 대상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국내의 어느 환경 단체에서 이 교과서를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 과목으로 알고,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¹¹⁾가 있었는데, 이 책은 전문적인 환경교육 관련 과목은 아니고, 환경교육 내용이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해당 면에서 사진과 삽화의 크기가 작아서 서술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분석 대상 교과서는 사례와 예시 자료 및 대화체 등이 다른 책에 비해서 비교적 많다. 그러나 본문 서술 문장은 여전히 고등학교 학생에게 비교적 어렵고 딱딱한 논술체 문장이 많다.

용어 해설은 본문 옆 여백 인 '날개'에 일부 있으나 미흡한 편이며, 어려운 용어들이 해설없이 본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책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야기식의 내용 서술과 사례, 만화식의 내용 구성, 사료(史料) 및 인용문 등이 많아서 상당히 다양하고 쉽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편이다.

조사 및 활동 제시는 주로 조사 형식이 많고, 학습 목표를 영역별로 고려하거나 제시한 것은 없어서 헛수는 많은데 형식은 단조로운 편이며, 수준이 어려워 학

표 1. '인간사회와 환경' 과 SOSE 교과서의 체제 비교

구 분	우 리 나 라	호 주
판형 및 색도, 지질	4×6 배판, 4도, 백색 모조지	변형 A4판(횡으로 더 넓음), 총 천연색, 백색 모조지
본문 분량	총 191 P	총 228 P
단원 구성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7개의 영역과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및 주제(소위 중단원)로 그대로 사용할. 이하 교과서의 제재(소위 소단원)도 교육과정에서 요소로 제시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 - 한 단원 분량은 대부분 약 20쪽 내외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 영역(strand)을 반영하되, 교과서는 단원(chapter)을 10개로 별도 구성함. - 한 단원(Chapter)이 평균 20쪽 내외이나 차이가 큼
세부내용구성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따라 단원별 차례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전개함	책의 앞과 각 장 별로 교육과정상의 영역과 핵심 강조 사항 등을 우리나라의 교사용지도서에서처럼 관련 부분을 소개함.
단원별 체제	- 단원명, 단원도입 안내글, 단원 목표, 주제명, 제재명 - 소단원별 도입과 '생각해보기', 항목별 제목 하에 내용 서술 및 사진과 삽화 자료 제시, 별도로, '탐구활동' 과 보충자료, 마무리학습 제시 - 대단원 끝에 '단원마무리', '학습정리' 와 '자기진단문제(평가문제)' 와 '교실 밖 탐구' 와 '선택활동과' (이상 심화학습용) 등의 활동제시	- 단원 도입 안내글,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주제어(key words)와 간단한 해설 제시 - 주제별(unit) 및 제재별 제목과 내용 서술 - 모든 주제별로 간단한 해설과 별도의 제목 하에 활동 제시 - 대단원 끝에 복습(Review)용의 평가지(report) 1 쪽씩 제시
사진 및 삽화의 제시	- 주로 사진을 중심으로 그림, 도표, 만화류의 그림, 지도 등을 제시 - 사진 삽화는 쪽 당 평균 1매 이상, 매쪽의 약 4분의 1 정도 차지 - 사진 등에 제목은 제시했으나, 대부분 자세한 해설은 없음	-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림, 도표, 지도, 그림 등 제시 - 사진, 삽화들이 매 쪽 당 평균 1매 이상이며 매 쪽의 약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게 크게 제시 - 제목과 자세한 해설을 제시
각주와 날개	- 각주 사용은 거의 없음 - 우측 여백인 소위 '날개' 부분이 여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일부에는 용어 해설이 있음.	- 각주 사용이 없음 - 면 옆의 날개로 불리는 여백을 별도로 남겨두지 않고, 한 면의 전체를 내용이나 사진, 삽화로 채움
정보화 관련	관련 내용을 참고할 Web site 안내와 인터넷 활용이 자주 나옴	인터넷 활용 안내가 거의 없음

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보인다.

사진과 삽화는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만화식으로 새로 구성·개발하거나 찾은 것도 상당히 보이며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일부는 주제 및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미흡한 점들도 보인다. 특히 주제나 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비교해 보면, 호주 것이 질적으로 우수한 사진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호주의 SOSE

호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지향 방향과 목표에 따라 내용 구성을 다시 하고, 교과서의 한 장(chapter)을 할애하여 이 교과서의 특성과 지향 방향등을

강조하고, 각 장별로 교육과정 관련 목표와 활동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구성도 실제로는 전통적으로 사회과를 구성하는 역사, 지리(특히 호주 지리 중심), 시민교육과 경제교육 등이 구분되게 구성·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내용 구성을 위한 노력이 많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용 서술면을 보면, 호주의 책은 전체 쪽 수가 많고 책의 판형이 크지만, 사진 삽화가 크고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본문 서술 내용 분량이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며, 내용 서술 수준이 비교적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이 주제어(key words)로 단원 앞 부분에 제시되었고, 활동들이 목표 별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다.

사진과 삽화는 본문의 주제 및 내용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것들이 많으며, 선명하고 사실적이며 시원하게 편집되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친절하고 해설과 활용 안내들이 잘 되었으며, 자료별로 번호가 각각 붙어있어 활용상에 편리하겠다고 본다.

본문상의 용어 해설이 구체적이며, 활동은 분량과 수준이 적은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겠다.

3. 두 나라 교과서의 비교 결과 요약

연구 대상의 두 나라 교과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상에서는 크게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볼 때, 우리나라 것은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영역과 주제 및 제재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내용 서술과 사진 삽화 및 참고 자료와 활동, 그리고 학습정리와 평가 등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 것은 교육과정 상의 영역 및 개념을 반영하되 교과서의 단원과 주제·제재 선택과 배열이 아주 다르며, 교과서의 단원별 구성이 우리나라 것 보다 단순하다.

내용 구성과 서술면에서는, 우리나라 것이 다양하면서도 아기자기하나 서술 내용이 많고 어려우며, 많은 활동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삽화는 호주 것이 단위 쪽 당 분량은 적으나, 보다 실제적·사실적이며 크게 제시되었고, 이들 자료에 대한 해설과 활동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쇄 상태와 편집도 호주 것이 더 돋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한 안내와 활용은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나라 책들이 제작되었으나, 우리나라 것에서의 활용이 돋보이고 호주 것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교과서의 성격과 별도로 각 국가에서의 정보화교육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교과명과 교과 성격 및 목표가 비슷한 우리나라의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과 호주의 '사회와 환경' 연구(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SOSE) 교과 간의 특성을 주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로 분석하고 일부 내용을 전문가의 인터뷰와 전자 메일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교육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및 Syllabus를 통한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에서 심화과정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는 전통적인 지리, 역사, 경제 및 시민교육 등의 교과에 새로운 환경교육 내용을 추가 강조하면서, 한 가지의 교과로 통합하여 만들고, 통합적인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 목표는, 우리나라 것은 사회과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목표들도 사회과와 유사하나, 호주 것은 통합적 목표로서, 사고력과 창조성,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이해, 의사소통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강조하며, 이 교과목 자체의 고유한 목표는 적다.

내용 체계는, 우리나라 것이 전통적인 지리, 역사, 공민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강조되는 일부 내용을 추출하여 공통적인 핵심 영역으로 하되, 최근 강조되는 7개의 주요 영역 아래 구체적인 내용 및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호주 것은 4가지 핵심 영역(strand)으로서 시간과 연속성 및 변화, 장소와 공간, 문화와 정체성(identity), 시스템과 자원 및 권력(power)을 제시하고, 그 하부에 보다 구체적인 핵심 개념들이 있으며, 이들은 어느 특정한 사회과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이다.

두 나라에서 이들 교과목의 교과서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계는 크게 보아서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육과정상의 영역과 주제 및 제재 등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호주 것은 교육과정 상의 영역 및 개념을 각 장에서 융합적으로 반영하되 교과서의 단원과 주제 및 제재 선택과 배열이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으며,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 구성은 우리나라 것 보다 단순하다. 내용상으로는 역시 지리, 역사, 공민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환경교육적이며 지속가능교육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나,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내용 구성 방식에서는 두 나라 것이 비슷한데, 내용 서술과 사진 삽화 및 참고자료와 활동, 그리고 학습정리

와 평가 등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것이 다양하면서도 아기자기하나 서술 내용이 많고 문장이 어려우며, 많은 활동과 평가를 요구하고 복잡하다.

사진 삽화는 호주 것이 단위 면 당 분량은 적으나, 본문 내용과 보다 부합되면서 사실적이며 크게 제시되었고, 이들 자료에 대한 해설과 활동 등이 효율적이며, 인쇄 상태와 편집도 호주 것이 더 돋보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안내와 활용은 우리나라 것이 더 돋보이고 호주 것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은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정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새 과목으로 출발하여, 내용 구성도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기간과 선행 연구 등이 부족한 가운데, 지리, 역사, 공민영역의 내용을 안배하면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교과서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 기간과 사전 연구 및 자료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이 과목이 일반 선택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상 과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관심과 노력도 적다.

호주의 SOSE는 장기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개발하고 필수 교과로서 국가 및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연수가 추진되면서 현장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 SOSE에서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에서, 전체 주요 영역과 개념을 제시하고, 별도로 각 Level 별로 상세한 목표와 내용 및 평가 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SOSE 교과내의 지리, 역사, 경제, 시민교육 등을 전체 교육과정을 속에서 구성하고 내용 체계를 만들었으며, 각 과목간의 교육과정 체계와 내용 서술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상당히 상세하다.

호주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영역 등을 반영하되, 특히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 등이 호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조직 및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단위 설정에서부터 내용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각 단위에는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으며, 매우 실제적인 사진 및 삽화를 새로 만들어 수

록하고, 핵심 주제어의 강조와 풀이 등이 있다. 조사 활동은 목표별로 다양하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은 간단한 방식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활용 정보와 안내는 우리나라 것이 매우 다양하나 호주 것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를 개발 할 때는 호주 것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도 호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보다 많이 연구하고, 그 경험을 우리가 참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註

- 1) 교육부의 당시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 및 기타 사회와 교육과정 개발 담당관으로부터 확인
- 2) strands는 영역, 내용, 개념 또는 학습과정의 분류 의미를 지닌다.
- 3) 사회와 환경(SOSE)의 주요 학습 분야는 4가지 strand를 가진다.
: 사회와 환경(Level 1-3), 역사(Level 4-6), 지리(Level 4-6), 경제와 사회(Level 4-6)
- 4) 6개의 레벨을 우리나라 학년제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Level 1: 예비기간의 마지막 Level 2: 1~2학년
· Level 3: 3~4학년
· Level 4: 5~6학년 Level 5: 7~8학년
· Level 6: 9~10학년
- 5) Queensland State (2000).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Year 1 to 10 Syllabuses*. Sydney.
그러나, 호주 전체로 볼 때는 이 주 정부의 문서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6) Queensland School Curriculum Council (2001).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Year 1 to 10 Sources Guidelines*. The State of Queensland, Sydney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
- 7) Curriculum and standards framework(CSF)II (2002).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Victorian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VCAA) pp.5~15를 발췌 및 재구성.
- 8) SOSE를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대학에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호주 Griffith University의 John Fien 교수, Vicky교수와 Macquarie University의 Tilburry 교수와 2004년 6월부터 8월사이에 전자메일 및 해외 세미나에서의 면담으로 확인한 내용임
- 9)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중인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용도서의 저자와 발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 김재한 외 9명(2002, 법문사), 김종욱 외 8명(2003, 교학사), 조영달 외 10명(2002, 두산), 최운식 외 16명(2002, 지학사) 등

10) 분석한 호주 SOSE 자료들:

- H. Mackay 외 3명, (2002), SOSE, Longman, Sydney.
- Jacqueline Hollingworth 외 6명(2001), SOSE 1, 2, 3권 - 5와 6 level의 국가 교육과정과 기준틀 (Standard Framework)에 준한 보충 학습 자료 -, Longman, Sydney.

11) 한면희 외(2001), '고등학교 환경교과서의 질적 분석 연구', 환경정의시민연대.

참고문헌

- 김일기 외, 1995, 제7차 사회과와 환경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서울.
- 교육부, 1995,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 _____, 1999, 2000, 중·고등학교 '사회' 과와 '인간사회와 환경' 및 '환경/생태와 환경'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 최병모 외,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통합 운영 모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서울.
- 최석진 외, 2001, 사회과 목표 내용 체계화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 _____, 2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환경교육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 _____, 2000, 호주와 한국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 한·호 국제환경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 _____, 2004,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서울.
- 최운식 · 황만익 · 장 호 · 진기문 · 박병석 · 유대환 · 탁송일 · 최병모 · 이진석 · 육근록 · 김기철 · 김재준 · 전석재 · 박근칠 · 강신태 · 구본형 · 오창훈, 2002, 인간사회와 환경, 지학사, 서울.
- 그 밖의, 고교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용도서 4종.
- 최정미, 2004,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10학년 사회과 교과서 지리 내용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Australian Education Council, 1994, *Syllabus Documents: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Years 1-10 and Senior Modern History, Senior Ancient History, Senior Geography, Senior Study of Society*, Sydney.

_____, *A Statement on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for Australian Schools, AEC: Victoria.

_____,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ACurriculum Profile for Australian Schools*, AEC: Victoria.

Fien, J., Gerber, R., and Wilson, R.(eds), 1989, *The Geography Teacher's Guide to the Classroom*, 2E., Macmillan: Melbourne.

Longman, 2003, *SOSE 1, 2, 3*, Sydney.

Marsh, Colin(ed.), 2000, *Teaching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3E., Prentice- Hall: Sydney.

Queensland State, 2000,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Year 1 to 10 Sourcebook Guidelines*, Sydney.

Queensland School Curriculum Council, 2000,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 Year 1 to 10 Sourcebook Guidelines*, Brisbane.

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1994, *Active and Informed Citizenship: Information for Teachers*, GO Print: Brisbane.

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1994, *Principles of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GO Print: Brisbane.

UNESCO, 2002, *Teaching & Learning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Victoria State, 2000,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 Curriculum and Standards framework(CSF) II*, Sydney

Australian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tudies of Society and Environment(AFSSSE), <http://www.pa.ash.org.au/afssse/>

Education Queensland, <http://education.qld.gov.au/>
Queensland Studies Authority(QSA), <http://www.qsa.qld.edu.au/>

Social Studies School Service, <http://socialstudies.com/>

최초투고일 : 2005. 07. 07.

최종접수일 : 2005. 07. 25.

교신 : 최석진, 110-230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jchoi@kice.re.kr, 011-296-5063)

Correspondence : Suk-Jin Choi, sjchoi@kice.re.kr